

Seungjio Lee

파릇한 청년 화가 시절의 이승조는 어느 날 기차에 몸을 실었다. 때는 196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 중이던 당시, 창밖으로 성냥갑처럼 높다랗게 솟은 고층 빌딩과 철길 소굴뚝이 빨리 감기 하듯 스쳐 지나갔다. 쓴살같은 속도에 의해 어쩌면 한 줄의 색띠, 원통형 파이프로 보였을 도시 풍경들. 그때 이승조는 불현듯 한 생각에 블들었다. 1982년 뜻날, 한 인터뷰에서 이승조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기차 여행 중이었다. 눈을 감고 잠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알핏 무언가 맘딱 속을 스쳐 가는 게 있었다.” 여행을 마치고 즉시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이를 밤을 꼬박 새워 당시 뇌리에 깊게 새겨진 이미지를 캔버스 위로 옮겼다. 그러곤 말했다. “오늘의 파이프적인 그림을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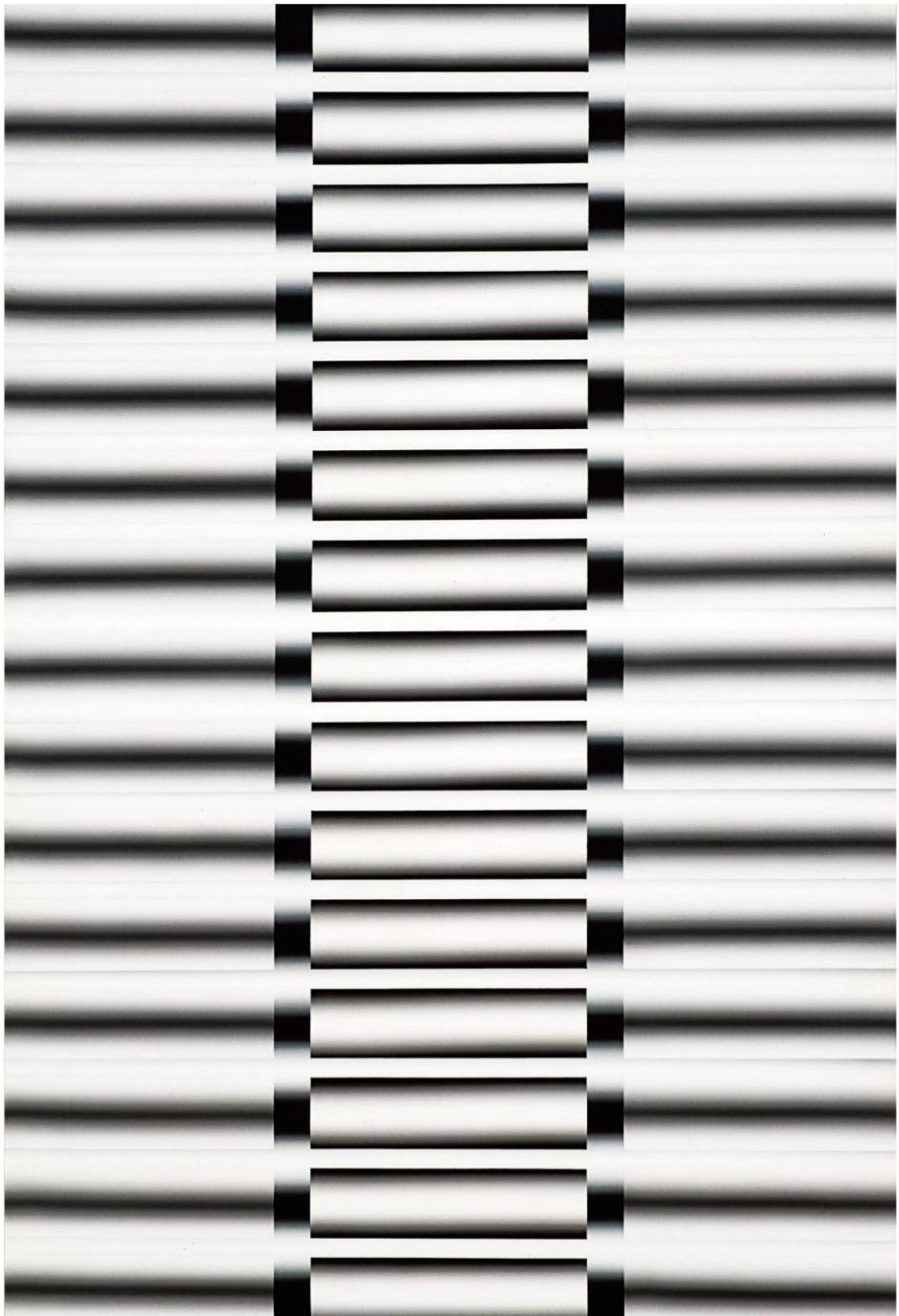
1960년대 한국 회단에 동장해 30년 기까이 활동해온 고이승조(1941~1990) 작가는 흔히 ‘파이프 작가’라 불린다.

이는 캔버스를 가득 메운 수직, 수평의 금속성 원통 형상으로부터 얻어진 칭호다. 생전의 이승조는 ‘파이프 작가’란 칭호에 그다지 달기 원하지 않은 듯했으나, 그가 원하는 원치 않은 관객은 그의 작품에서 파이프를 읽어냈다. 한편 오늘날 그의 그림을 보면 질서정연하고 서슬 푸른빛을 띠는 원통의 형상들은 파이프리기보다 오히려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된 기하학적 패턴으로도 보인다. 그렇지만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에 탄생했지만, 으뜸 모더니티가 숨 쉬고 있는 것이다. 한국 기하주상의 역사에 눈 밝은 이들은 이승조 작업의 탁월함을 일찍이 알고 있었겠지만, 일반 관객이 그의 예술 세계를 본격적으로 접한 것은 제작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의 작고 30주기를 맞아 개최한 회고전 (〈이승조 : 도열하는 기둥〉)에서 일 것이다. 당시 전시는 이승조 쓰아린 기하주상의 진취성을 펼쳐 보이며 그간 그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단색화 계열 화가들에게 비해 다소 멀리 벌어진 이승조 고유의 예술 세계를 소개했다. 지난 〈이승조 : 도열하는 기둥〉이 그의 작업을 연대기별로 살피는 장이었다면, 오는 9월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개인전은 1970~80년대 그가 매진한 검은 화면의 후기 ‘책’ 연작을 대거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다. 나아가 그의 작품을 프리즈 서울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 지금이 이승조의 세계에 더 깊숙이 친입하는 절호의 타이밍인 것이다. ‘세계적인 이트페어인 프리즈’ 처음으로 국내에 상륙하는 만큼, 한국적 기하주상을 선도한 이승조의 수작을 국내외 미술 애호가 및 관계자에게 널리 알릴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승조라는 작가는 그간 국내외에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 미술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작가입니다. 이런 보석을 발굴하고 알리는 일이야말로 갤러리의 역할이지요.”국제갤러리 관계자의 말이다.

이승조가 회단에 등장한 대한민국의 1960년대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였다. 1964년 주거용 고밀도 건축의 시초라 불리는 마포아파트가 서울 도화동에 들어섰고, 1968년에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개통했다. 또 1969년, 비단 견너 미국에선 사람을 우주선에 실어 달로 보냈다는 뉴스가 들려오던 기이한 시대였다. 어쩌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른 문명의 속도, 한국 산업사의 정황은 고스란히 이승조의 예술 세계에 거세게 물을 투드렸을 것이다. 그리한 시대에 떠난 기차 여행에서 이승조는 창밖의 도시 풍경이 빠른 속도에 의해 ‘빛’으로 소화되는 현상을 미주했다. 1968년 〈제1회 현대작가 초대전〉에서 발 표한 초기작 ‘책 10’은 당시의 강렬한 경험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는데, 작품에선 빨강, 파랑, 노랑 등의 경쾌한 색미가 수직으로 캔버스를 가로질렀다. 부드러운 붓이 아닌, 마치 벼린 칼로 그은 듯한 수직의 색미는 어쩐지 속도



생전의 이승조는 ‘파이프 작가’라 불렸다. 캔버스에 규칙적으로 배치한 금속성 원통의 모티프들은 그가 살았던 1960~80년대 산업화 현장의 파이프를 연상시켰다. 한국 기하주상 역사에 불을 지핀 화가 이승조의 작품을 이번 프리즈 서울 및 국제갤러리 개인전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반세기 전 탄생했으나 늙지도 모더니티가 살아 숨 쉬는 회화, 그가 펼친 예술 세계에 성큼 걸어 들어가볼 기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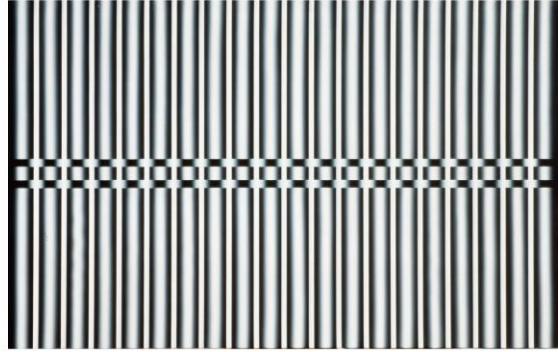
작품 '혁 88-19', 1988, 195x132.5cm. COURTESY OF THE ARTIST'S ESTATE AND NUCLÉ GALLERY. 이미지 제공 : 누클레 갤러리.

작품 '혁 88-19', 1988,
195x132.5cm.
금속성 원통형 파이프의
형상이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는다.

'혁 88-19'(1988)
195x132.5cm.



'액 85-21'(1985)
199×299.5cm.



'액 88-19'(1988)
200×318cm.

감을 내며 캔버스 위를 질주하는 듯했고, 이는 당시 한국의 도시화·풍경과 교묘하게 겹친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치 사이프로도 같은, 신비한 일체감의 유통형 디프라 손에 잡힐 듯 푹 속아들어 있었다. 분명 2차원 평면이지만 3차원으로 보이는 작시. 이는 반밖에 가까웠던 채색 방망을 통해 구현했다. 캔버스를 무시로 사포걸해 평면을 방해하는 질감을 없애고, 그 위로 넓적한 평분의 양 끝과 중앙에 유와 물감을 떨어 10차례 번복적으로 붓질하는 전에 없던 체색법, 빛에 대한 영감에서 출발했고, 물감의 질묘적 발견을 통해 비로소 완성한 '액' 연작은 이후 30년 가까운 이승조의 예술적 여정에 함께하며 그를 '파이프 작가'로 불리게 만들었다.

'1972년 결혼하기 직전, 남편은 저에게 말했어요, '평범하게 살 생각 하지 마.' 그때는 작가니까 그런 말을 하나 보다 싫었는데 살면서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점차 알았더라고요. 광화문, 덕수궁 등지에서 걸리는 전시 출품을 위해 '구르미'에 작품을 심고 화석동에서 한강을 건널 때, 거울 갈대밭에 작품이 날아갈까 한 손으로 내내 붙들고 간 사람아이예요. 밤은 꿀에도 물감만은 사야 하는 작품에 대한 애달픈 사랑이 있었죠. 남편은 언제 어디서나 강렬한

작가 의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그 메시지를 주변에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작가는 오직 작품으로 말하고 자기 작품에 책임져야 한다'라고. '이승조 유족 대표'이자 부인 고정자는 예술가 이승조, 인간 이승조를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사적인 일화를 묻는 말에 이처럼 답했다. 일화에서 엊그제 수 있듯 이승조란 사람의 우직스러움은, 그가 서린에 휩쓸리지 않고 그만의 고유한 세계를 전개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전작한다. 기계적 미감이 충만하게 드리운 이승조의 기하주상은 1960년대 한국 미술계에서 미술가의 즉흥적 행위와 계획적 표현을 중시하는 앙포르트 미학이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특히 '프기 운 추상'이라 불리는 앙포르트의 대처침에 서서 이승조는 '차가운 추상'으로 대변되는 기하주상에 끈질기게 매달렸다. 그 결과 추상보다는 구상에, 기하학적 추상보다는 표현주의적 추상에 호의적이던 화단 분위기 속에서 그는 1968년부터 1971년까지 보수적 구상화의 거점이라 여겨졌던 (국)전에서 언어에 수상하여 '예외'를 만들어냈 다. 한편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1970년대 한국에서는 침단으로 '한국의 모노크롬'이 주류 경향으로 발전했다. 특히 알려진듯 모노크롬 일풍에서 단행하려는 현대미술 사조가 탄생했는데, 이때 많은 화가들이 '백색'의 미학에 열중하고 조형적 요소를 제거하는 '말 이미지를 강조' 할 때 이승조는 그만의 독자성을 묵묵히 지켜기로 했다. 이 당시 작가는 온통 검은 화면 속 유통형 이미지인 파이프를 어운으로만 날뛰놓은 연작을 대거 발표했는데, 이는 후기 '액' 연작으로 불린다.

명상적 검은 화면 속 마치 아지랑이처럼, 때론 커튼의 결처럼 일렁이는 유통의 파이프들, 후기 '액' 연작은 금속성 기계 미학이 뒷받침된 전기 '액' 연작과 나란히 봤을 때 관객을 놀라 추상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만 같다. '당시는 작가가 노자 사상에 주목한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역사화이 물질적 세계를 넘어 무위의 경지에 이르게 했죠. 작가는 끝없이 창조라는 명제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끝없는 변화를 추구하며 불안과 근심을 떠나 정신적 내재화를 위한 무채색 안에서 안도감을 찾은 것 같아요." 고정자의 말이다. 일견 칭송 같아 보이는 후기 '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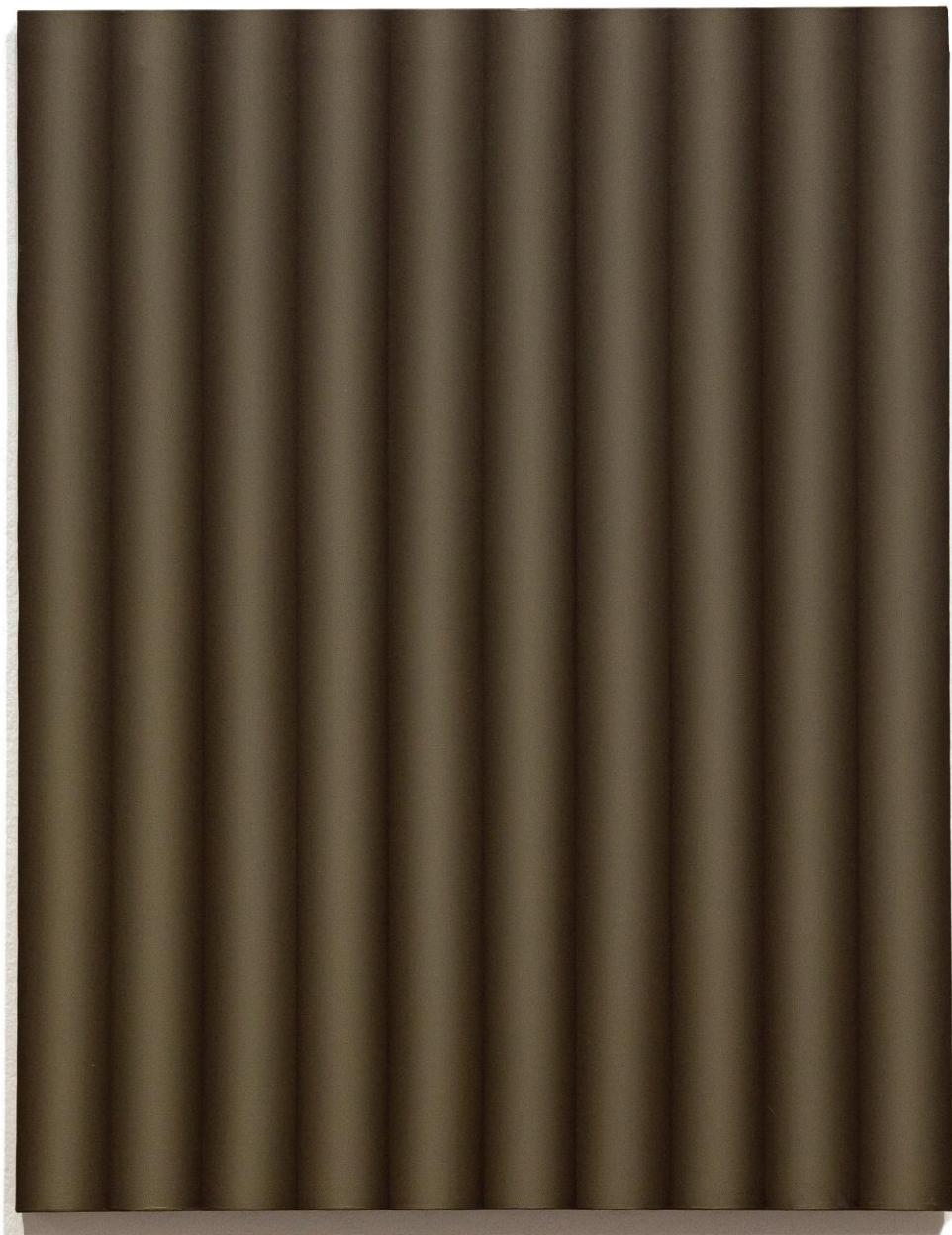
**"기차 여행 중이었다.
눈을 감고 잠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얼핏 무언가 맘막 속을
스쳐 가는 게 있었다.
(중략) 그 미묘한 감동에 휩싸여
집에 돌아온 즉시
이틀 밤을 꼬박 새우며
마음에 남은 이미지를 조각한 결과
오늘의 파이프적인 그림을 완성했다."**



'액'(1987)
130×97cm.

이승조는 1960년대 현장이 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정되는 한국의 산업화를 목도했다. 손실같은 문명의 속도는 그의 작업 세계에 거세게 문을 두드렸을 터. 마치 캔버스 위를 질주하는 빛반짝 수직, 수평, 사선의 모티브들에선 어떠한 속도감이 느껴지는 듯하다.

작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블랙 안에 블루, 그린, 그레이가 살며시 피어오른다. 시퍼렇게 서슴이 오른 봇자국이 불현듯 떠오르고, 이처럼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관객은 고요함에 임연하게 된다. 30년이라는 절았던 이승조의 예술적 어정쩡한 마침표로서 기록된 검은 그림은, 어쩌면 그가 회화를 통해 이윽고 무한으로 나아가려는 준비지 않았을까 짐작하게 할 뿐이다. 이렇듯 색띠에서 출발해 검은 무한으로 뛰어나가기까지, 이승조의 작품은 한국 기하추상의 발달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궤적이라는 점에서도 물론 유의미하지만 그보다 작품 하나하나가 절박한 삶과 작가 정신이 깃든 예술 노동의 집합체였다는 점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더 큰 울림을 주는 듯도 하다. 오는 9월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개인전과 그의 작품이 소개되는 프리즈 서울을 앞두고, 고정자는 이렇게 전한다. "이승조는 예술에 대한 신앙과 같은 믿음으로 삶이란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얀 캔버스의 공포를 절친으로 만드는 다크임, 맹렬한 대화를 즐기움으로 만드는 스길, 녹록지 않은 삶 속에서도 작품의 펌리티를 유지 하려 했던 애달픈 사랑까지. 이번 서울에서 열릴 두 전시를 통해 그가 갖고자 한 미래에 대한 무한 도전을 느끼보시길 바랍니다."



‘暗’(1976)
116×90cm,

이경진 1976년 작품. 캔버스에 유채. 116x90cm. COURTESY OF THE ARTIST'S ESTATE AND KUKLE GALLERY. 출처 : 구글검색.

후기 ‘暗’ 연작 중 하나로,
영상적 깊은 화면 속 여동으로만 남은 피아프
영상이 마치 커튼의 물결처럼 일렁인다.